

 <b>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</b>	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
배 포 일		2018.5.25 / (총 6매)		
감염병관리과	과장 /담당	조은희/서순영	전화	043-719-7120/7113
예방접종관리과		공인식/유정희		043-719-6810/6839
바이러스분석과		강 춘/정윤석		043-719-8190/8192

## 2017-2018절기 인플루엔자 “유행주의보 해제”

- ◇ 3월 이후 연속 3주간 유행기준(6.6명/외래환자 1,000명) 이하로 감소
- ◇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당부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2017년 12월 1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5월 25일(금)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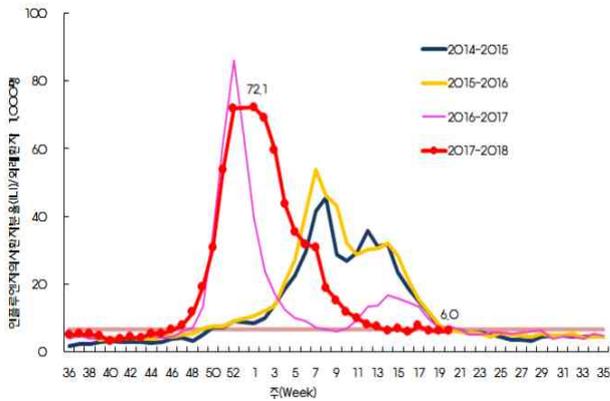
\* 2017-2018절기 유행기준: 6.6명(외래환자 1,000명당)

○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\*는 제18주(4.29~5.5) 6.2명 (외래환자 1,000명당), 제19주(5.6~5.12) 6.1명, 제20주(5.13~5.19) 6.0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(6.6명)보다 낮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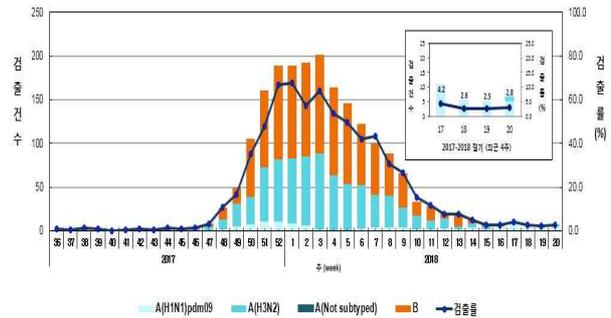
\* 의사환자: 38℃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

\* 제20주(5.13~5.19)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양성률 2.8%(7건/252건 의뢰)

○ 유행해제는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, 5월 23일 자문결과 2017-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5월 25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.



<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>



<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>

- 2017-2018절기 인플루엔자는 2016-2017 절기에 비하여 2주 빠르게 정점에 도달하였고, 유행초기부터 B형 인플루엔자가 A형과 함께 유행하였으며, 3~4월의 봄철 인플루엔자 유행은 없었다.
- 2017-2018절기의 정점은 '18년 1주(12.31~1.6) 72.1명으로 지난 절기의 정점인 '16년 52주(12.18~2.24) 86.2명보다 시기가 빨랐으며 의사환자는 낮게 나타났다.
- 그러나 과거 B형 인플루엔자는 봄철 유행을 하였으나, 이번 절기에는 유행초기부터 A형과 B형이 함께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.

발생분율\*(/1,000)

주(Week)	12	13	14	15	16	17	18	19	20
2016-2017절기	13.1	13.7	16.7	15.8	14.5	13.3	9.5	6.8	7.6
2017-2018절기	8.0	7.2	6.2	6.8	5.8	7.6	<b>6.2</b>	<b>6.1</b>	<b>6.0</b>

\* 2013년 제36주부터 개편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자료임(200개 기관 참여)

- 유행주의보 발령시점과 종료 시점 모두 지난절기에 비해 한 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 1> 절기별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 발령·종료 시점

절기	유행기준 (/1,000명)	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(ILI/1,000명)	유행주의보 해제 시점(ILI)	정점(ILI/1,000명)	
				1차	2차
2017-2018	6.6	2017.12.1.(7.7)	2018.5.25.(6.0)	72.1(1주)	-
2016-2017	8.9	2016.12.8.(13.5)	2017.6.2.(6.7)	86.2(52주)	-
2015-2016	11.3	2016.1.4.(12.3)	2016.5.27.(6.0)	53.8(7주)	-
2014-2015	12.2	2015.1.22.(14.0)	2015.5.21.(6.2)	45.5(8주)	35.6(12주)
2013-2014	12.1	2014.1.2.(15.3)	2014.5.1.(6.4)	64.3(7주)	-
2012-2013	4.0	2013.1.17.(4.8)	2013.5.27.(2.8)	12.7(9주)	-
2011-2012	3.8	2012.1.5.(4.7)	2012.5.25.(2.8)	23.1(6주)	20.3(13주)
2010-2011	2.9	2010.10.1.(4.48)	미 실시	23.89(52주)	-
2009-2010	2.6	[A(H1N1)pdm09 발생]	미 실시	44.96(45주)	20.45(15주)

-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되었지만 수족구병 등이 증가하고 있고,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소 철저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를 당부하였다.

◀ 개인위생수칙 ▶

◇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
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, 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 등

◇ 기침예절 실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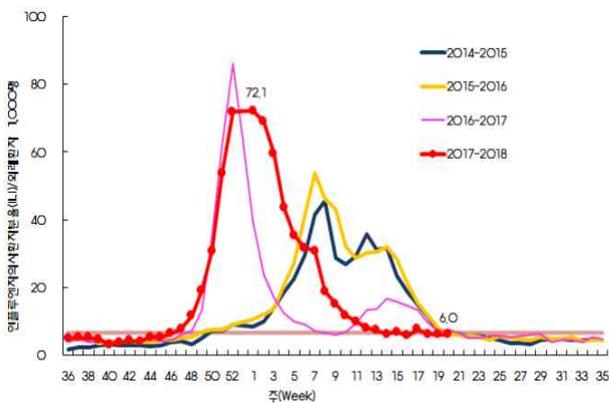
-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
-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
-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
-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

◇ 자기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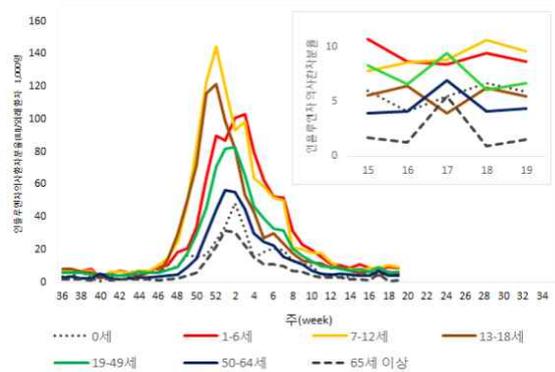
- <붙임> 1.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 
2.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 자료

## 붙임 1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

- (임상 감시)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(ILI) 분율이 제18주 (2018.4.29~5.5) 6.2명(외래환자 1,000명당), 제19주(5.6~5.12)에 6.1명, 제20주 (5.13~5.19) 6.0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(6.6명)보다 낮은 수준
-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-12세에서 가장 높았고,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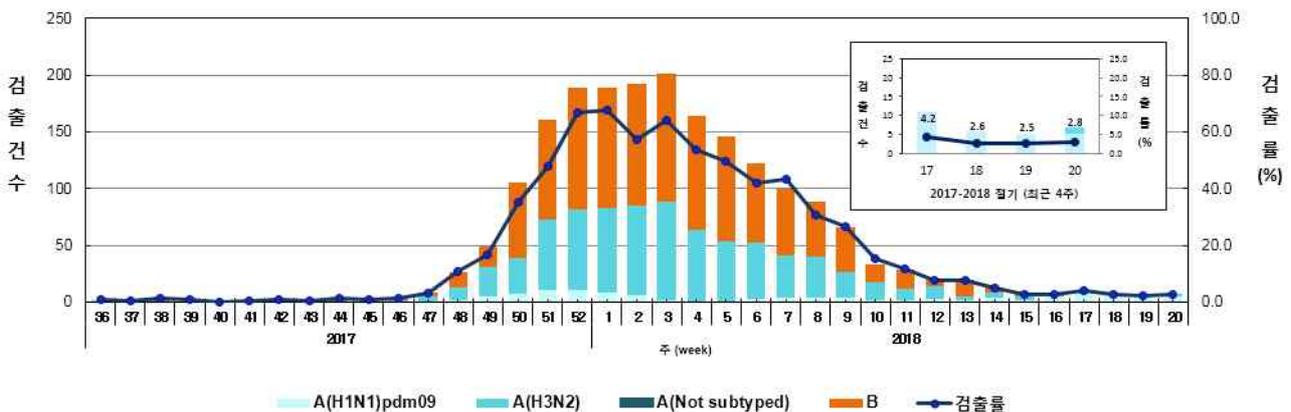


<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>



<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>

- (실험실감시) 2017-2018절기 들어 제20주까지 총 1,987건[B형 1,100건, A(H3N2)형 770건, A(H1N1)pdm09형 117건]의 바이러스 검출



붙임 2

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 자료



질병관리본부  
KCDC



1339  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##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!



[올바른 기침예절]

1



휴지나  
손수건은 필수

2



옷 소매로  
가리기

3



기침 후  
비누로 손씻기

##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!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1



손바닥

2



손등

3



손가락 사이

4



두 손 모아

5



엄지 손가락

6



손뼉 밑



발행일 2018.3.21